

중동 분쟁 1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유광호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khryou@kiep.go.kr, 044-414-1165)

이지은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jnlee22@kiep.go.kr, 044-414-1096)



차 례

1. 중동 분쟁 경과
2. 부문별 영향 점검
3. 결론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지난 1년간 중동 분쟁은 아시아-유럽 항로를 중심으로 글로벌 해상 운송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우리나라와 분쟁 당사국 및 주변 지역간의 무역 규모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글로벌 원유 수급과 국제유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임.
 - [해상 운송]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통항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해상 운송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됨.
 - [분쟁 당사국 및 주변 지역과의 교역] 지역 내 불안정성 확대로 우리나라와 분쟁 당사국간의 무역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홍해발 물류 교란은 유럽 및 북아프리카와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국제유가 및 에너지 안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글로벌 원유 수급 차질과 이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실제 지난 1년간 국제유가는 몇 차례 변동만 있을 뿐 일정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분쟁에 따른 실질적인 원유 공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 최근의 이스라엘 행보와 이에 대한 동인을 고려하면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여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전쟁 지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동인은 미국 대선 실시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국의 신 행정부가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국교 정상화' 및 '이란 핵합의'에 대한 논의로 분쟁의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나 두 건 모두 단기간에 성사되기 어려운 사안임.
- ▶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태 격화에 따른 경제 피해 확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사전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이 누적되는 한편, 유럽 및 북아프리카 시장 내 점유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여건이 지속될 수 있음.
 - 해상 운임과 국제유가 변동은 우리나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 우리 정부 당국의 재정정책 운용 및 금리 인하 여력이 그만큼 제한될 수 있음.
 -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여 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기업에는 큰 비용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최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동 내 공급 차질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정유사의 대체 수입처 발굴 필요성이 확대됨.
 - 홍해발 물류 교란은 수출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유럽 및 북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악화시켰으며, 분쟁 장기화 시 불리한 여건이 지속되어 현지 시장 점유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중동 분쟁 경과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시작된 현 중동 분쟁은 2023년 10월 7일 시작되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약 4만 7,000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내면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¹⁾

표 1. 2023년 10월 7일 이후 중동 분쟁의 주요 경과

연도	일시	내용
'23년	10월 07일	·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알아크사 홍수 작전' 감행
	08일	· 이스라엘이 전쟁 선포
	19일	·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순항미사일과 드론 발사
	28일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대상으로 지상 작전 개시
	11월 19일	·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 갤럭시 리더호 납치
	24일	·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발효
	12월 01일	· 이스라엘-하마스 간 7일간의 휴전 종료
	04일	·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로 진군
	18일	· 홍해 안전 항행을 위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안보 구상 '번영의 수호자 작전' 창설
'24년	01월 02일	·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해 하마스 정치국 2인자 살레흐 알아루리 사망
	11일	· 미국과 영국이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치 지역 상대로 공습
	03월 26일	· UN 안보리가 이스라엘-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04월 01일	·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습
	13일	·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300개 이상의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
	19일	·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 이스파한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발사
	07월 13일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습해 하마스 군사 지도자 모하메드 데이프 사망
	19일	· 후티 반군이 드론을 사용해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격
	30일	·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 푸아드 슈르크 사망
	31일	· 이란 방문 중이던 하마스 정치국 의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폭발로 사망
	09월 20일	·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군사 사령관 이브라힘 아킬 사망
	27일	·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해 공습으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사망
	30일	·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대상으로 지상 작전 개시
10월 01일	·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자료: "Six months of the Israel-Gaza war: A timeline of key moments"(2024. 4. 7.), *The Washington Post*, 온라인 기사; NPR, "From pager blasts to Nasrallah's killing: 12 days that transformed a bloody conflict"(2024. 9. 29.), 온라인 자료;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The Iran Primer, "Houthi Explainer: Timeline of Attacks"(2024. 7. 21.),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0. 1.) 참고로 저자 작성.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역내 분쟁의 발단이 되었으나,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 및 역내 친이란 세력 간 다면전이 진행되면서 전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이스라엘군은 체닌과 툭카름을 포함한 서안지구 각지에서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1) 명시한 사망자 수는 가자지구 약 4만 2,600명, 서안지구 약 760명, 이스라엘 약 1,140명, 레바논 약 2,460명의 합 4만 6,260명에 기반. "Israel-Gaza war in maps and charts: Live tracker"(2024. 10. 9.), *Al Jazeera*, 온라인 기사; "Death toll from Israeli onslaught on Lebanon since Oct. 8, 2023 climbs to 2,464"(2024. 10. 20.), *Anadolu Ajans 1*,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0. 21.).

지하드(PIJ: Palestine Islamic Jihad), 알아크사 순교 여단(Al-Aqsa Martyrs' Brigades) 등 팔레스타인 인 무장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습을 단행함.

- [이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IRGC, 하마스,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의 고위 지도자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24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함.
-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 발발 직후부터 국경 근처에서 헤즈볼라와 소규모 교전을 주고 받았으며, 2024년 9월 헤즈볼라 대원들의 무선 통신기 폭발 사태를 기점으로 핵심 전선을 헤즈볼라로 전환하고 베이루트 공습을 확대하고 있음.
- [예멘 후티 반군] 후티 반군은 2023년 11월부터 하마스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홍해 항행 선박 납치 및 공격,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일라트 드론 공격 등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해 왔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2024년 7월과 9월 두 차례 후티 반군 통제 지역의 주요 항구와 발전소를 공격함.
- [이라크] 이라크 이슬람저항운동(IRI: Islamic Resistance in Iraq)은 지난 1년간 역내 미군기지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190회가 넘는 공격을 단행함.²⁾
- [시리아]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자국 내에 이란이 운영하는 군사 연구시설을 수용하고, 이란과 헤즈볼라 간 무기 공급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시리아 본토를 간헐적으로 타격해 왔는데, 2024년 들어 이러한 공격을 60차례 이상 감행함.³⁾

2. 부문별 영향 점검

가. 해상 운송

■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통항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해상 운송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됨.

- 예멘 후티 반군은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2023년 11월부터 홍해를 지나는 선박 총 89척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피해를 우려한 글로벌 선사들이 홍해 항로 대신 아프리카 남단 우회로를 이용하면서 물류 혼란이 초래됨.⁴⁾
- 처음에 후티 반군은 '전쟁 중단'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만 공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나, 실제 공격은 이스라엘과 무관한 선박에도 가해지면서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도 우회 항로를 이용하려는 선사들이 많아짐.
- 2024년 10월 첫째 주 수에즈 운하 일평균 통항 선박 수는 전년동기대비 62.4% 감소한 27.7척을 기록하였음(그림 1 참고).

2) IRI는 단일 단체가 아니라 카타이브 헤즈볼라, 하라카트 헤즈볼라 알누자바 등 역내 미군과 국제연합군을 공격하는 친이란 시아파 무장세력 네트워크를 지칭함. The Washington Institute, "Tracking Anti-U.S. and Anti-Israel Strikes From Iraq and Syria During the Gaza Crisis"(2024. 8.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3.).

3) "Israeli strikes on Syrian military sites kill 18, health minister says"(2024. 9. 9.), BBC,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0. 4.).

4) Lloyd's List, Reported Houthi attacks in the Red Sea and Gulf of Aden(검색일: 2024. 1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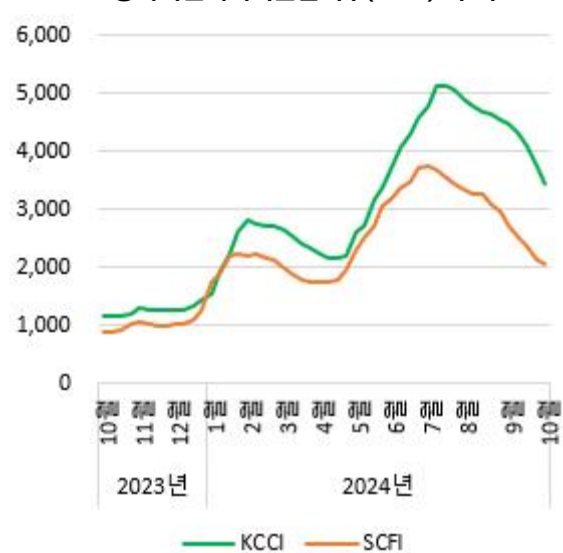
- 아프리카 남단 우회로는 기존 항로 대비 10~14일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료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며, 운항 위험이 커짐에 따라 보험료, 인건비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화주의 물류 비용 부담이 확대됨.
- 해상 운임 비용 상승은 수출입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 세계 물가 상방 압력 요인으로도 작용하였음.
 - 영국에 기반한 경제정책연구센터(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는 홍해 내 물류 혼잡으로 2024년 전 세계 물가상승률이 평시대비 0.18%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음.⁵⁾
- 단 처음에 부각되었던 선박 공급과 납기 지연 문제는 글로벌 선박 공급 및 우회로 정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며, 해상 운임 불안정성도 2024년 하반기 들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임.
 - 2024년 6월 글로벌 선박량은 사상 처음으로 3,000만 TEU를 넘어섰으며, 2024년 연간 선박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310만 TEU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⁶⁾
 - 한국형컨테이너운임지수(KCCI: KOBIC Container Composite Index)는 전쟁 발발 이후 상승 추세를 지속하며 2024년 7월 기존의 다섯 배 수준인 5,135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3,000대까지 13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그림 2 참고).

그림 1. 수에즈 운하 및 남아공 희망봉의 일일 선박 통행량 추이



주: 2023년 10월 8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 7일이동평균 기준임.
자료: IMF, Port Watch(검색일: 2024. 10. 15.).

그림 2. 한국형컨테이너운임지수(KCCI)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추이



주: KCCI는 10월 7일, SCFI는 10월 11일까지의 수치임.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검색일: 2024. 10. 15.); 한국관세물류협회(검색일: 2024. 10. 15.).

5) "Houthi Red SEa attacks still torment global trade, a year after October 7"(2024. 10. 5.), *Al Jazeer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0. 10.).
6) "Cellular container fleet reaches 30 million teu"(2024. 10. 2.), *Shipping Watch*,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0. 9.).

나. 분쟁 당사국 및 주변 지역과의 교역

■ 우리나라와 주요 분쟁 당사국 간 무역은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전체 교역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주요 품목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대체 수입처를 잘 마련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전쟁 발발 이전인 2023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와 주요 분쟁 당사국(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레바논, 이란) 간 교역 규모는 우리 전체 교역의 0.4% 수준으로, 이들 국가와의 교역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⁷⁾
- [이스라엘] 2024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이스라엘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7.8%, 36.8%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대 수입 품목인 반도체제조용장비(MTI 4단위 7321 기준)의 수입이 55.3% 줄었으나 해당 감소분을 주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하였음(표 2 참고).
 - 우리나라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 중 이스라엘 비중은 2023년 상반기 2.8%에서 2024년 상반기 1.7%로 줄어든 반면, 일본(22.5%→25.2%), 대만(2.1%→3.0%) 등 아시아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⁸⁾
- [이스라엘 외 분쟁 당사국] 같은 기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레바논, 이란과의 무역 규모도 각각 72.3%, 15.5%, 5.6% 줄었으며,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액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미국의 대이란 제재 여파로 2010년대 후반부터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 교역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 어려움.

■ 홍해발 물류 사태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 규모의 11.2%와 0.6%를 차지하는 유럽 및 북아프리카와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⁹⁾

- [EU] 2024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3%, 12.3% 줄었는데, 홍해 사태로 인한 물류 비용 상승도 어느 정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는 대EU 수출의 80.4%, 수입의 49.7%를 해상으로 운송하고 있어 EU와의 교역이 아시아-유럽 항로 운임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¹⁰⁾
 - 실제 2023년 상반기 대비 2024년 상반기 EU의 대한민국 무역 규모 변화율(-9.3%)은 같은 기간 EU의 대세계 무역 변화율(-4.3%) 대비 5.0%p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¹¹⁾
 - 우리와 같이 전쟁 발발 이전 양자 간 무역량 대부분을 홍해 항로에 의존했던 대만과 일본도 같은 기간 대EU 교역이 각각 12.7% 6.9%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양자 무역 활동에 홍해 항로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미주 주요국의 대EU 교역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거나(캐나다 -3.0%, 브라질 -2.2%) 늘어난 경우도 있음(미국 2.6%, 멕시코 0.6%).¹²⁾

7) KITA, K-stat(검색일: 2024. 10. 2.).

8) 위의 자료.

9) 위의 자료.

10) 옥용기(2024), p. 4, 「홍해 예멘 사태의 수출입 영향 및 시사점」, Trade Brief no. 02, KITA.

11) KITA, K-stat(검색일: 2024. 10. 2.).

12) 위의 자료.

- [북아프리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북아프리카 수출과 수입 규모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10.2%, 17.1% 줄었으며, 특히 이집트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이 87.8%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 감소를 견인하였음.
- 2023년 상반기 기준 이집트는 우리나라의 10대 천연가스 수입처로 전체 수입의 2.0%를 차지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0.4%에 그쳐 17위로 하락하였으며 카타르, 나이지리아산 천연가스가 이를 대체하였음.¹³⁾

표 2. 전쟁 발발 전후 우리나라와 분쟁 당사국 및 주변 지역 간 무역 규모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증감률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증감률
분쟁 당사국	이스라엘	1,225.1	761.7	-37.8	996	629	-36.8
	팔레스타인	35.5	9.5	-74.3	1.2	0.7	-42.4
	레바논	50.0	45.1	-10.0	16.9	11.3	-35.3
	이란	84.4	77.5	-8.1	1.5	3.5	140.9
주변 지역	EU	35,836.2	33,586.7	-6.3	35,601.9	31,212.5	-12.3
	북아프리카	1,398.0	1,255.5	-10.2	2,636.1	2,185.2	-17.1

자료: KITA, K-stat(검색일: 2024. 10. 2.).

- 한편 2022년 12월 한-이스라엘 FTA 발효로 우리나라 GDP의 0.007~0.061%, 소비자후생 0.83억~7.2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역대 분쟁 발발로 FTA 체결 효과가 당장 발현되기 어려워짐.¹⁴⁾
- 한-이스라엘 교역은 2020년대 초반부터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인 3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한-이스라엘 FTA 발효로 양국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아울러 2020년 아브라함협정 체결, 2022년 네게브 서밋(Negev Summit) 및 이스라엘-레바논 간 해상 경계선 확정 협의안 타결 등 최근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로부터의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고자 시도해 온바, 이스라엘과의 교류 확대가 이스라엘 인근 국가와의 협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분쟁 발발로 FTA 발효에 따른 효과가 절감될 수 있음.¹⁵⁾

다. 국제유가 및 에너지 안보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글로벌 원유 수급 차질과 이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실제 지난 1년간 국제유가는 몇 차례 변동만 있을 뿐 일정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임.
- 국제유가(WTI유 기준)는 중동 분쟁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변동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배럴당 70~90달러 사이를 횡보하였음.

13) 위의 자료.

14) 산업통상자원부(2016. 1. 6.),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관련 공청회 개최」,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10. 12.).

15) 네게브 서밋은 2022년 3월 미국, 이스라엘과 아랍 4개국(UAE, 바레인, 모로코, 이집트)의 외교 수장이 모여 안보 및 경제협력 증진을 논의한 회담임.

- 지난 1년간 국제유가 추이를 살펴보면 '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24년 4월 이란의 대이스라엘 1차 본토 공격, '24년 6월 이스라엘-헤즈볼라 전면전 가능성 대두, '24년 10월 이란의 대이스라엘 2차 본토 공격 이상 총 네 차례의 사건을 전후로 변동을 겪었으며, 각 변동에 대한 고점은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임(그림 3 참고).
- 지난 1년간 국제유가 변동은 각 분쟁 당사국 상황보다 주변 산유국으로의 갈등 확장에 따른 지역 전체의 원유 생산 및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아 이에 따른 유가 상방 압력도 각 사건 전후로만 짧게 이어지는 데 그침.
 - 주요 분쟁 당사국 중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예멘은 원유 생산량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국가들이며, 전 세계 원유 생산의 약 3%를 차지하는 이란 역시 미국의 원유 수출 제재에 따라 대체로 중국에만 자국산 원유를 판매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전쟁 초반 이란 IRGC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관련 상황은 단 한 차례 발생하였으며, 이마저도 선박 한 척을 나포하는 데 그쳤음.
 - 2024년 10월 이란의 대이스라엘 2차 공격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대이란 석유시설 공격과 이에 대응한 이란 및 역내 친이란 세력의 주변 산유국에 대한 석유시설 공격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관련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음.
- 중국 등 주요국의 원유 수요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조만간 OPEC+의 부분적 감산 해제도 예정되어 있는 등 전반적인 글로벌 원유 수급 상황도 중동 불안에 따른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¹⁶⁾

■ 중동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 및 수출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원유 수급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시현하였음.

- 우리 정부의 비축유 확보 노력으로 현재 8개월치의 원유가 비축된 상황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는 530만 배럴 규모의 공동원유비축 사업을 새로 추진하였음.
- 2021년부터 지속된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 확대 추세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음.
 -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2021년 59.8%에서 2023년 71.9%로 2년간 12.1%p 증가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도 72.3%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감(그림 4 참고).¹⁷⁾
 -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 확대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어려워진 가운데 미국, 카자흐스탄 등 유럽 주변국으로부터의 원유 도입 경쟁이 심화된 것이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임.¹⁸⁾

16) OPEC(2024), *Monthly Oil Market Report October 2024*, p. 78.

17)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4. 10. 15.).

18) 유광호(2023), 「러-우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 변화와 시사점」, p. 8,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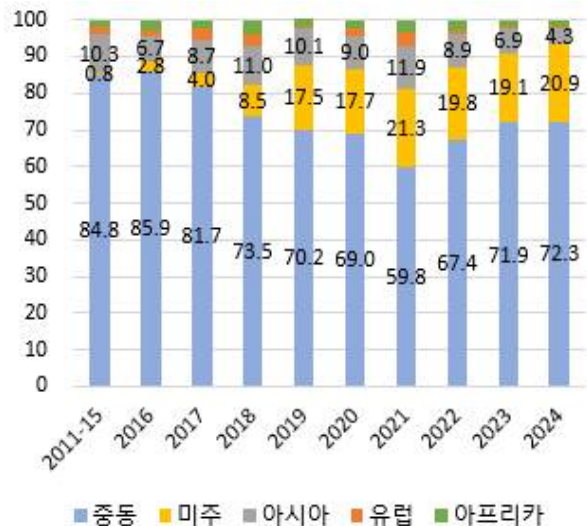
그림 3. 국제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그림 4.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주: 1) 2023년 10월 8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 WTI유 가격 기준임.
2) 노란색 음영은 각 사건 직후의 단기 고점으로,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지는 않음.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4. 10. 15.).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4. 10. 15.).

3. 결론 및 시사점

■ 지난 1년간 중동 분쟁은 아시아-유럽 항로를 중심으로 글로벌 해상 운송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우리나라와 분쟁 당사국 및 주변 지역간의 무역 규모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글로벌 원유 수급과 국제유가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침.

- [해상 운송]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통항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해상 운송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됨.
- [분쟁 당사국 및 주변 지역과의 교역] 지역 내 불안정성 확대로 우리나라와 분쟁 당사국간의 무역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홍해발 물류 교란은 유럽 및 북아프리카와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국제유가 및 에너지 안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글로벌 원유 수급 차질과 이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실제 지난 1년간 국제유가는 몇 차례 변동만 있을 뿐 일정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분쟁에 따른 실질적인 원유 공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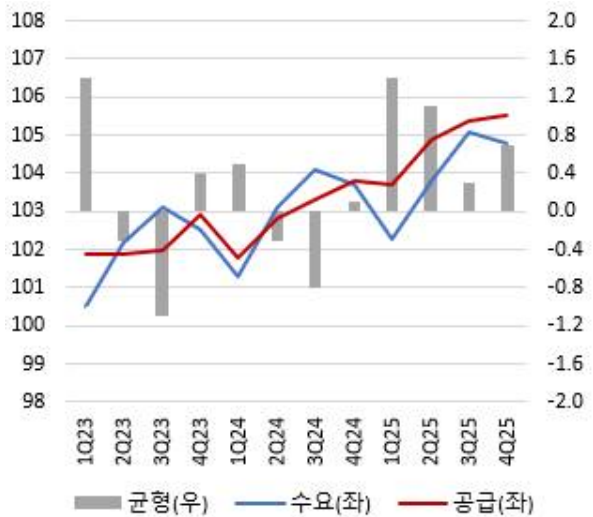
■ 최근의 이스라엘 행보와 이에 대한 동인을 고려하면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여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미국과 이란 각국의 내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장기화 유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 역내 분쟁의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파악됨.

- 다가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동 내 분쟁 장기화는 미국의 대중동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고 '대이스라엘 지원이 국가 예산 및 외교 역량을 소모한다'는 부정적 국내 여론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 측에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임.
- 올해 7월 취임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역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이스라엘 측이 중대한 도발을 하지 않는 한 상황을 관리하며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현 이스라엘의 동인으로는 ① 전선 확장을 통한 이란 프록시(proxy) 세력 약화, ② 공화당에 유리한 미 대선 국면 편성, ③ 이란의 직접적인 분쟁 참여 유도를 통한 미-이란 핵합의 논의 재개 방지, ④ 자국내 연정 유지 및 정권 연장으로 보이며, ②를 제외하면 미국 대선 실시 이후에도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대선 이후 미국 신행정부는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국교 정상화'와 '이란 핵합의'에 대한 논의로 분쟁의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나, 두 건 모두 단기간에 성사되기 어려운 사안임.
 -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가 인정'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며, 사안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란과 역대 친이란 세력이 이를 방해하기 위한 군사 행동을 전개할 수 있음.
 - 미국 대선에서 양 후보 모두 중동 내 긴장 완화 수단으로 이란과의 핵합의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과거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트럼프 당선 시 보다 강경한 자세로 이란과의 핵합의 논의에 임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미국의 핵합의 파기를 경험한 이란도 이에 맞대응하며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을 수 있음.
-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사태 격화에 따른 경제 피해 확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사전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이 누적되는 한편, 유럽 및 북아프리카 시장 내 점유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여건이 지속될 수 있음.
 -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이 계속되면 유럽 및 북아프리카행 항로에 대한 화주의 운임 부담이 지속될 수 있으며, 최근 인근 선박 통행량 확대를 기회 삼아 소말리아 및 아덴만 해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따른 물류 차질 심화 가능성도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 분쟁이 전개되면서 긴장의 강도가 높아지고 제기되는 잠재 위협의 종류도 다양해진 만큼 지역 내 원유 생산 및 수출 차질에 대한 위험성도 전쟁 발발 초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원유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유가의 상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음.
 - 단 2024년 4/4분기부터 한동안 초과공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될 뿐 아니라 OPEC+의 여유생산 능력도 일일 600만 배럴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현 글로벌 원유 시장이 어느 정도의 완충 및 자생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극단적인 공급 차질이 연속하여 발생하지 않는 한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수 있음(그림 5, 그림 6 참고).

그림 5. 전 세계 원유 수요/공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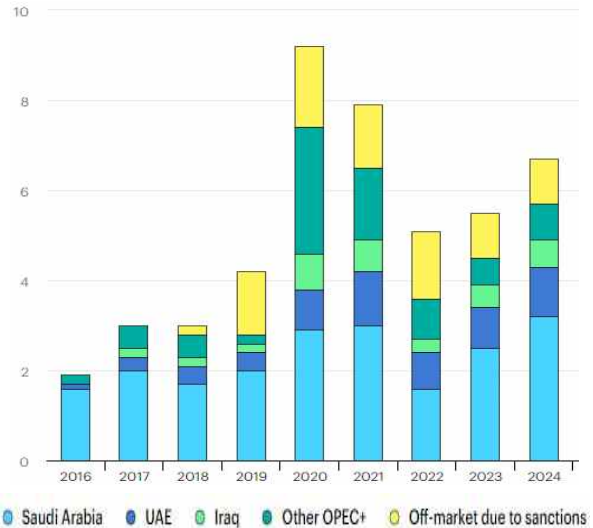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배럴/일)



주: OPEC+ 감산정책이 표시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함. 자료: IEA(2024), Oil Market Report, pp. 54-56.

그림 6. OPEC+의 여유생산능력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IEA, OPEC+ Spare Crude Production Capacity and Implied Total Oil Stock Build(검색일: 2024. 10. 15.).

- 불확실성 존속으로 물가 관리, 원유 비축량 유지, 수입처 다변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 이행 필요성도 지속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정부 및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해상 운임과 국제유가 변동은 우리나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 우리 정부 당국의 재정정책 운용 및 금리 인하 여력이 그만큼 제한될 수 있음.
 -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여 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기업에는 큰 비용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최근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동 내 공급 차질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정유사의 대체 수입처 발굴 필요성이 확대됨.
- 홍해발 물류 교란은 수출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유럽 및 북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악화시켰으며, 분쟁 장기화 시 불리한 여건이 지속되어 현지 시장 점유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기존 홍해 항로를 이용하지 않았던 미주지역 국가가 입지 강화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2024년 상반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EU 수입시장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일제히 하락한 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미주 주요국의 점유율은 모두 상승하였음.¹⁹⁾KIEP

19) KITA, K-stat(검색일: 2024. 10. 2.).